

삼요체 안에서의 信的 신앙적 의미

尹起鳳*

目次	
I. 序論	IV. 바울로에 있어서
II. 종교의 구조와 기능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
1. 인간문제	1.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
2. 문화현상	2.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
3. 종교적 실체	V. 삼요체 중 수양론으로서의 信
4. 신앙	1. 一心
III. 기독교에서의 믿음과 행함	2. 信과 行
1. 기독교의 믿음 이해	VI. 修養論으로서의
2. 기독교의 행함 이해	信이 지향하는 이상향
	VII. 結論

I. 序論

왜 믿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이라는 말로 직결된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믿음’과 ‘행함’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다.

“信은 믿음직함(誠)을 뜻한다. 사람인(人)과 말씀 언(言)이 서로 따른다.” (信誠也. 從人言, 說文解字) 信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人)와 말을 뜻하는 글자(言)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믿음직함(誠)을 뜻한다.

또한 한글 사전에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두 가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지 의미란 첫째, 꼭 그렇게 여겨 의심하지 않다. 즉 사실인정, 확인, 수긍, 긍정 등 어떤 객관적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남의 힘을 입는 마음을 내다. 즉 의지하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등 인격적 객체에 전인격적으로 의존감, 소속감을 느끼거나 그 권위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윤리적인 믿음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믿음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하여 결국 믿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을 살펴봄으로서 수양론 안에서의 믿이 지향하는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일심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으며,信과 行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종교의 구조와 기능

1. 인간문제

현대의 심리학은 인간을 삶의 활동을 영위하는 유기적인 개체로 취급하며 그 삶의 활동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욕구'라고 한다. 이 '욕구'라는 것은 인간을 행위 하게 하는 기본적인 힘의 총칭이다. 그래서 작업 가설적 규정에서 서술한 '인간문제'는 욕구체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 활동을 관찰하는 각도에서 다룬 것이다.

'욕구'를 또한 인간의 '가치경험'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장에서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 경험의 내용에 있다. 이 경험은 내용 이외에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경험에는 기본적 지향성이 있

다.’ 이는 두가지 방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하고 싶다”라는 방향과 반대로 “하고 싶지 않다.”의 마이너스 방향이다. 인간의 경험은 그 중 어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장에서 가치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 경험에서 나타나는 가치는 단순한 유형이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욕구’가 실제로 가리키는 방향은 그 ‘가치의 복합’중에서 종합적으로 우월한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말리노브스키는 욕구를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는 직접 인간의 생리 조건과 결부된 욕구로서 예를 들면 위벽자극시의 식욕과 같은 것이다. 또 문화적 욕구는 생활 환경에서 주어진 문화적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내면화해서 인간의 욕구가 되어 버린 것으로 이 문화적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에 비하면 2차 적인 욕구이다. 그리고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는 다 같이 개인적 욕구인데 그 욕구는 당사자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진해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의식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적 욕구 외에도 또 다른 욕구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 경험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체계가 내면화된 결과로 개인적인 욕구와 모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개인적 욕구와 관계없이 그 자신의 방향을 가리키기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 유형’은 이와 같이 복잡하다.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는 ‘욕구’가 항상 뒤를 이어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욕구의 발생, 충족, 해소라고 하는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인간문제도 발생할 일이 없고, 마음은 항상 안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과의 순응관계나 조절 작용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그대로 남게 되어 욕구충족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인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욕구는 미래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장래에 대한 전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래에는 해결의 전망이 나쁠 경우 마음은 과도 긴장상

태에 빠지기 쉽게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감과 함께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 가치 복합의 모순이 격화해서 표면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자극되어 많은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마음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인간 문제에 대한 심리적 윤곽이다. 인간의 고뇌는 대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욕구를 종교적 가치에 관점을 두고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종교적인 목적과 이상을 달성하려는 것과 일반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종교와 관계 있는 욕구인 종교적 욕구와 그것과 상대적으로 종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욕구인 일상적인 욕구의 구별로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적 욕구는 미리 종교적 가치체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과 같이 깊고 넓은 마음으로 두루 사랑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욕구는 종교적 가치체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라는 각도에서 보았을 때 종교적 욕구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교적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일상적 문제 역시 종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 인간문제는 일상적 문제, 종교적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2 문화현상

종교학의 연구 대상은 문화현상인데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이다. 인간이 행위 하는 것이면 어떠한 것도 모두 문화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단편적인 행위를 그대로 문화현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적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온 것,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종교적 현상은 문화적 현상으로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현상 세계를 무대로 삼아 삶을 영위하며 그 세계의 사상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 또한 개인이라는 기초적 체계로 이루어진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사회를 형성한다. 그래서 개인의 마음속에는 사회가 반영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삶의 활동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성사회에는 독자적인 형태의 사회 규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라 개인의 경우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요하는 사회 독자적인 문제도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영대는 대순진리회종단 안에서 종교적 문화적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것은 그 문화권 안의 사람들에게 작용하여 종교적 가치를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종교적 가치의 상징이다. 그래서 영대가 사회의 장에서 종교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개인적 가치체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영대가 사회의 장에서 종교적 가치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영대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물건이라는 면에서 개인의 장에서 영대는 가치경험 그 자체와 구별된다.

이처럼 같은 문화 현상으로서 종교현상 중에서도 종교적 가치 본연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인간은 그 삶의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성의 가치체계이고 십자가는 축가성의 가치체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현상으로서의 종교 현상이 종교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종교적 실체

종교는 인간 생활에 이상을 갖게 하며 인간문제의 해결을 꾀한다. 따라서 종교를 인간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 기술, 발명, 정치, 발견, 경제도 모두 인간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넓게 보면 종교도 과학, 기술, 발명, 발견 등과 함께 인간문제 해결이란 목표로 노력해온 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화체계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을 특별히 종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종교에는 독자적인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규명해야 한다.

종교는 인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종교에 비하면 다른 문화체계의 방법은 어느 것이건 그 해결이 상대적이고 한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항상 모든 경우에 작용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의

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요청에 부응되어 나타난 문화체계가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서 궁극적이란 것을 인간 생활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것은 한량없이 넓고 깊은 인생을 직관하는 일이다. 또한 궁극적이란 것은 무한 우위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은 종교가 갖는 문제처리의 능력이 이 문제의 어려움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것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체계가 그러한 특징을 갖추었다고 믿고 있다.

4. 신앙

종교활동은, 현실적으로는 종교체계 안에 나타나게 된다. 종교 체계는 제각기 독자적 구상에 따라 조직적 체계를 세워서 그것을 처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의 유효성을 믿고 있다. 또 그 방법으로 목적이 달성된 것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 종교 체계 안에 속해 있게 된다.

근대에 와서 과학과 종교의 충돌과 같은 문제도 종교 체계가 제공하고 있는 구상의 효과가 믿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도 있고, 그 종교체외에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는 그 효과성이 확신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종교체계의 구상은 그 효과를 보고 나서 믿는 다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이나, 효과 없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종교는 당사자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III 기독교에서의 믿음과 행함

1. 기독교의 믿음이해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 '믿음'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소망과 영감의 기본적인 원천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란 주제는 많은 논쟁을 야기 시켜 왔다. 그것은 유대교에 대비하여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분리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혼란이 믿음의 의미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한다.¹⁾

기독교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믿음'이란 하느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승복이요 자유로운 호응이며 성실한 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낸다. 먼저 구약의 믿음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일한 분이신 야훼 하느님을 흠송 하고, 둘째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에 성실한 신뢰를 갖는 것이며, 셋째로 하느님의 자비와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품는 것이고, 넷째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음으로써 야훼 하느님과 인간과의 결속을 이루고 다섯째로 하느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다.²⁾

이처럼 구약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들지 않았으며 하느님은 항상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믿고 있었다. 구약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느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시고 항상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구약의 진술

1) B.S.차일즈 著/유선명 譯, 성서신학(하), 서울:은성, 1994, p.343

2) 조철현,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I), 신학전망 71호, 1985, p.18

들을 일차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게 하였다. 성서는 먼저 인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며, 구약성서의 맥락에서는 믿음이란 항상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³⁾

구약에 있어서의 '믿음'은 활력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활력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형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속에는 새로운 힘을 방출시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순종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약에서의 믿음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대한 확신과 신뢰, 성실성, 의지 등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믿음의 보편성이란 구원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할례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믿음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첫째, 하느님의 진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었고, 둘째,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는 것이었으며 셋째, 명령에는 신속히 순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였고 넷째, 모든 선의 창조자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내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이란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다.⁵⁾

3) 김학무, 「성서에 나타난 신앙」, 「사목」 126호, 1989, p.6

4)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야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신명기 9장23절)

5)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37절)

이처럼 야브라함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전 존재까지도 모두 희생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여기서 나오는 순종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하느님의 약속에 참인 것에 대한 믿음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한편 모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백성들이 모세의 증명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으로 인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⁶⁾ 하느님은 당신 백성과의 계약을 통해서 역사에 관여하시는 데 이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당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과 계약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믿음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믿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즉 본질에 관한 것과 둘째, 그는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며,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즉 사역에 관한 것과 셋째,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의무에 관한 것 등이 포함된다. 구약성경의 '믿음'개념은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두려움과 신뢰,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본래 이 두 가지는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의 독립적 성격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관계에 살아있는 긴장을 불러넣었다. 또한 '믿음'은 인간의 외적행위와 내면생활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하며, 유일신론적으로 사용되었다.

차일즈는 '믿음'이란 용어의 발전배경과 관련해서 바이저가 '믿음'이란 용어가 공동체를 탈피하여 개인의 자의식이 등장하였을 때 어떤 발전이 이루어

6)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31절)

cf)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시편 106편12절)

7) 김학무, 위의 글, pp.9-10

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심을 표명한다. 한편,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 義에 대한 고대 근동의 지혜 개념과 관련된다는 슈미트의 가설을 따른다면 믿음은 무질서한 인간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계속되는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자신을 떠받치는 것이다.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 것에 대한 믿음 둘 다를 포함하였다. 그 구절의 현저한 특색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있어 법정적 의미로 그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것, 즉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확인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신약성서에서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과 유대 전승에서 ‘믿음’의 의미의 연속선상에서, 신약의 ‘믿음’도 신앙하다⁹⁾, 순종하다¹⁰⁾ ‘의지하다’¹¹⁾ ‘소망하다’¹²⁾ ‘신실함’¹³⁾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

신약에서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리킬 경우 신약에서의 믿음과 구약에서의 믿음은 동일하다. 구약의 의인들은 나타난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행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란 ‘아는 것’과 더불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과 그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

8) B.S.차일즈, 위의 책, pp.345-348

9)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34절)

cf)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38절)

10)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8절)

11)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리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5장36절)

12)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장18절)

13)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3장7절)

는 것'과 더불어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

신약성서에서의 믿음의 의미는 역사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하여 인간이 갖추어야 할 근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성서에서의 믿음의 의미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구약의 믿음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었다. 현재의 생활 속에서 희망찬 믿음을 가지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믿음이였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의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이중의 의미로 나타난다.¹⁴⁾ 근본적으로는 신약성서에서도 구약의 믿음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약의 의미는 예수에 의해 새로운 차원으로 더 첨가되어 심화되고 있다. 즉 믿음은 예수의 구원사건에 대한 인식이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하느님께 대한 순종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선포내용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¹⁵⁾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절대성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서는 믿음의 복음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핵심을 예수와 그분이 지니신 하느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한에게 있어서의 믿음도 공관복음서와 같이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과 예수를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고 말한다.¹⁷⁾

14) 조철현, 위의 글, p.23

15)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3-4절)

16) 김학무, 위의 글, pp.12-13

17)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요한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¹⁸⁾ 그분의 말씀 안에 주어진 예수의 자기계시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언급된다.¹⁹⁾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큰 의미는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믿음이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바울로 서간에 나타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로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바울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느님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바울로는 ‘사람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²⁰⁾는 말로 믿음의 제도 아래서는 율법이 실효가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구원이 당연히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의 은총²¹⁾임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만 강조한다면 혹시 ‘인간이 그저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이점에 대하여 바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18절)

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16절)

cf)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4장39절)

19)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15절)

cf)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40절)

20)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28절)

21)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4절-8절)

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람은 능동적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인간이 믿는 바’라든가 ‘인간이 믿는 방법’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종종 믿음을 지적인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이를테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바울로는 믿음을 이미 은총으로 의화(義化)를 선언한 하느님이 새로운 삶을 준다는 보장인 것이다.²²⁾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온 믿음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제자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염려를 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그 관심을 집중시키며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도와 관련해서는 22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예수는 한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도의 대상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모범을 보였다. 그러므로, 예수와 기도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의 행함 이해

성서에서 행함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행동적인 정열을 나타내는 단어로 모든 종류의 일,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행위들과 관련되어 상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또는 윤리적 과제와 같은 일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행함’의 정확한 의미는 성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법들로부터 찾아내야 한다. ‘행함’은 인간의 행위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그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행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구약과 신약에서의 행함의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구약에 있어서의 행함을 살펴보면, ‘행함’이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22) John F. O'Grady 著/박태식 譯, 바오로의 편지, 서울:바오로딸, 1999, pp.213-214

말로 사용될 때, 그 말은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행함은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을 성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²³⁾ 다른 한편으로 성전의 봉사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의행동들이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⁴⁾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 즉 율법을 순종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둘째, 행함은 타락 기사와 관련하여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⁵⁾ 셋째로 행함은 인간을 하느님과 분리시키는 약하고 비난받을만한 행위, 즉 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⁶⁾ 이처럼 행함이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특히 사악한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느님과 불화 시키는 죄의 본질에 속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¹⁻¹⁻¹⁸⁾²⁷⁾

다음으로 신약에서의 행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약에서는 특히 하느님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될 때 ‘행함’은 구원의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사용되어 진다.²⁸⁾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행함은 위대하고 영광스런 일들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인간의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부정적인 개

23)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세기2장15절)

24)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찌니(민수기 8장11절)

25)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17절)

cf)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닐것이었도 너는 땅에 세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12절)

26)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11절)

cf)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 같이 되며” (욥기 24장14절)

27) 이병철(편), 성서원어 신약신학사전 3, 서울:브니엘출판사, 1985, pp.231-232

28)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마태복음 11장2절)

cf)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20절)

념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어 진다. 인간의 일들로서 ‘행함’은 악함과 연결되어 29) ‘어두움의 일’³⁰⁾, ‘육의 일’³¹⁾ ‘악의 일’³²⁾ ‘불신앙의 일’³³⁾ ‘불법적이며 죽음의 일들’³⁴⁾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 진다.³⁵⁾

또한 바울로 서간에 나타나는 행함의 경우 ‘선을 행함’에 대해서 바울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⁶⁾ 이러한 행함은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결부된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율법적 행위’(부정적 측면에서의)와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사용되어진다.

또한 행함이 악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는 로마서 13장 12절의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버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수형 ‘행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바울로는 정신적인 영역 즉,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24절)

cf)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27절)

30)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12절)

31)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리디아서 5장19절)

32) “너희는 너희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 8장41절)

33)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15절)

34)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8절)

35) 이병문, 야고보서 2장 14-26절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 수원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53

36)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7절)

IV. 바울로에 있어서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

1.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사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들은 선택신앙³⁷⁾에 의한 국수주의적, 배타적 구원사상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유일한 하느님이시며 전 세계의 통치자인 야훼 하느님께서 갖는 주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보편적 구원사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³⁸⁾ 전자가 유대인들의 신원과 결부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후자는 야훼스트 신학³⁹⁾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유배시대의 제2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구원사상에 의한 모든 민족들의 구원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제시된 아브라함을 통한 만민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야훼 하느님께 대한 구체적인 행함과 믿음의 일치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심판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해서는 의인이어야 한다. 자신의 행위 없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보편적 구원사상과 관련되어 구원의 조건으로 아브라함(이스라엘)의 중개자로서의 사명수행과 함께 민족들 자신의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사상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으며, 특히 제2 이사야 예언자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구원계획에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을 결코 제외시키시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당신의 자비로써 인류 전체에게 구원을 선사하시고자함을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하였다.⁴¹⁾

이처럼 보편적 구원사상에 의한 구원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수주의적, 배타적 구원사상은 이스라엘의

37)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38) 송재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보편적 구원사상」, 『현대 카톨릭사상』 제21호, 1999, pp.245-250

39) 야훼스트 신학의 보편적 구원사상은 창세 12-1에서 3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만민축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성조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후대에 가서 왕조신학으로 계승된다.

40) 송재준, 위의 글, p.255

41) 송재준, 위의 글, pp.261-263

선택사상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계약의 준수와 율법의 실천에 의한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구원사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하느님 앞에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으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 하느님 앞에서 공로와 보상과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신적인 특권이었던 것이다.⁴²⁾ 그러나 바울로에 있어서 율법의 행함은 결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느님의 뜻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기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지니는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⁴³⁾ 그들은 하느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율법이 범해졌을 때,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⁴⁴⁾ 또한 바울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⁴⁵⁾

2.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그 핵심사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따른 구분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42) H.Ridderbos 著/박영희 譯, 바울신학, 서울:비전, 1988, p.217

4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

44)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3-24절)

45)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5절)

cf)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을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2장 4절)

누구나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게 작용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믿음이 약 한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4:1

1.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의 의심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2. 즉,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3.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 다른 사람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을 위해 그는 서거나 넘어진다. 그는 서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그를 서게 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5. 어떤 사람은 이날을 다른 날보다 더 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다고 판단한다. 각 사람은 그의 자신의 마음에 확신해야 한다. 6. 날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7.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8.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즉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는 것이다. 10. 너는 그런데 왜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한 너는 왜 너의 형제를 멸시하느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11.,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살았다. 따라서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약한 자는 고기와 포도주를 불결하다고 먹지도 않고, 또한 어떤 특정한 날들을 보통 날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편 강한 자들이란 외적인 문제들을 자신들의 구원에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다.⁴⁶⁾

바울은 채소만을 고집하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속에는 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 강한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바울 자신은 본래적으로 강한 자의 위치에 서있음을 엿볼 수 있다.

46) 박익수, 바울의 서신과 신학 I, 대한기독교서회, 1994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 해결방안(14:13-23)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3. 따라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그리고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로 깨끗지 못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만 어떤 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 불결한 것이다. 15. 만일 네 형제가 식물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신 너의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함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18.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처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 받는다. 19. 그런즉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20. 식물의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참으로 정하지만,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다. 21.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너의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 네게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 그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3. 그러나 만약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 되었으니 왜냐하면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부터가 아닌 것들은 죄이다.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태도를 비판하며 그들의 태도를 바꾸라는 권면의 내용이다.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에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한다.

믿음에서 부터가 아닌 것들은 죄라 하였다. 이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빛과 자신의 깨달은 양심에 의거한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이 조화와 어긋나는 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죄가 되는 것이다.

한편 바울로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죄인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뜻하는 것과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구원을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구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

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로 믿음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즉 구원의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원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인 것이다.⁴⁷⁾ 믿음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구원이란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것이다.⁴⁸⁾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을 위한 한가지 방법의 두 가지 측면인 것이다. 바울로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기준이 ‘행함’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을 하라”⁴⁹⁾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삶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아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믿음’과 ‘행위’라는 두 실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울로는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행위는 믿음의 표출이며, 동시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언급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⁵⁰⁾

47)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28-29절)

48) 조철현,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 『신학전망』 72호, 1986, pp.9-10

49)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16절)

50)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1-3절)

V. 삼요체중 수양론으로서의 信

1. 一心

우주의 모든 일에는 시작되는 근원처가 있고 출발점이 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에도 중심이 되는 근원처가 있어 그곳에서의 작용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 행동을 하게 됨은 똑같은 이치이다.

여기서는 인간존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근원처를 마음에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건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마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 있으니 먼저와 나중을 안다면 도에 가까운 것이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교법2장51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에 있어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또한 도주께서 포유문에 “나의 구하는 것은 무량하고 지극한 보배에 있으니 지극한 보배라는 것은 곧 나의 心靈이다”⁵¹⁾라 하시어 인간이 찾아야 할 진정한 보배란 자기의 마음의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 또한 『대순지침』에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 “마음이 몸의 주(主)로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 들이는 것이다”(대순지침 48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두 인간의 근본처가 마음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의 회복을 이룩해 수행의 실천적 원동력으로 삼는 각고의 자기성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음의 작용은 인식의 작용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동양에서 논의되는 마음의 특징은 직관으로서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된 것이 반드시 실제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의 성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⁵²⁾

51) 「---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卽吾之心靈也---」(교운2장41절)

52) 유승종,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대순사상논총』 제5집, 포천:대순사

「상제께서 己酉 년에 들어서 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 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 하셨도다.」(공사 3장29절)

인간이 품게되는 마음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천지의 일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사고에만 그치는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 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한 면은 병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大病과 小病이 그것이다. 대병은 정신적, 심적으로 오게 되는 병이고 소병은 육체적으로 겪게되는 병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병의 원인은 육신을 지배하는 주체요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과 무질서가 여러 가지 병을 낳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마음과 정신에 대한 질서를 찾는 자기 성찰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마음과 정신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며 병을 고치는 데 있어 마음에 대한 자신의 굳은 성경신이 지극하게 될 때 그 효력이 있게 됨을 보여준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모습, 완성된 불변의 모습을 희구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불변의 모습은 물질에서 찾기 이전에 인간이 마음속에서 찾았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인간이 후천의 새로운 이치와 원리에 맞는 모습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에 대한 불변의 마음, 즉 ‘일심’이라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진심견수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고 하시어 참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고,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

라”고 하셨다.

마음이 純一한 경지에 이르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一心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곧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천성과 본성을 찾은 상태이다.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 낙안(林樂安)은 죽고 최 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하셨도다.」(교법3장20절)

일심을 가진 자는 생사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 여기에 대한 비유로써 상제께서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일심을 가지게 되면 무궁무진한 복록을 입게 됨을 밝혀 주셨다.⁵³⁾

이는 인간이 지니는 극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5)

여기서 일의 성사여부가 인간의 마음가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일의 성사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으로서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예시50절) 하셨다.

이는 一心을 가진 자만이 최후의 목적인 도통군자가 된다는 뜻이다.

53)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2장 4절)

이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에 맞춰 나가는 수행을 몸소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信과 行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이며,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⁵⁴⁾

또한 한마음을 정한 바엔 利益과 損害와 邪와 正과 偏壁과 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萬古를 통하되 四時와 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萬劫을 경과하되 江河와 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信이라 한다.⁵⁵⁾

信은 五行으로 보면 5·10 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자리는 만물을 주재하고 成事시키는 밑바탕을 뜻한다. 따라서 매사에 信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萬事不成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춘무인(春無仁)이면 춘무의(春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종자를 남겨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교법2장45절)

이것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는 이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를 신앙함에 있어서 매사에 의심 없는 신심(信心)으로 일관하며, 가식 없는 자세로 항상 언행을 일치시키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으

54) 대순지침, pp.53-54

5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69, p.17

로 수도의 목적인 영통의 통일도 信心이 견고하게 뒷받침된 연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 화약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라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 가겠나이라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행록5장19절)

상제의 곁에서 따랐던 종도들 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죽을 지니라하신 말씀을 숙고해 볼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의 말이 곧 약이라 ---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니 내 말을 믿으라”(교법2장1절)고 하시어 상제께서 교훈 하신 말씀을 無道病的 약으로 삼아 믿으라고 하신 내용에서도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길화개길실, 홍화개홍실(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은 콩심는데 콩나고 팥심는데 팥난다.(種豆得豆)는 인과법칙을 말한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철저히 믿어 온 것으로, 이것이 진리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불변의 진리임을 굳게 믿고 있으면서, 또한 선과 악, 길과 흉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교법 1-22)라 하셨다. 옳은 말은 얼마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꼭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옳고 그르기의 여부를 떠나 행하게 된다. 그 만큼 믿음은 중요한 의미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⁵⁶⁾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며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예시 1-83)

의심을 품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믿음으로 인해서 머슴은 도를 통하게 된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 그 시기가 문제가 된다. 즉 믿음에도 때가 있는 것이다.

「나의 일은 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승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값은 천냥이라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예시 1-61)

56) 대순지침, p.53

57)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崔風憲이라는 高興 사람은 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노하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좇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교법 3-17)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권지1장19절)

V. 修養論으로서의 信이 지향하는 이상향

인간의 희망은 현실세계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종교는 보편적 가치로서 구원의 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수주의적 가치도 종교 안에 함유하고 있다.⁵⁸⁾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遵行)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⁵⁹⁾

선천 도통의 주체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에 해당하나,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도통은 천지인 삼계 모두의 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상신선실현과 지상천국건설에서 그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도통진경은 천지신명과 인간이 도통을 하여 도통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상세상 즉, 완전한 세상을 이룬다로 해석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후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 본 후천선경인 도통진경의 실상은 인류가 꿈꾸어 온 이상세계로서 천지가 개벽하여 결실을 맺는 천지성공시대인 것이다.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주시기를 청하니라.

58)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p.147

5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69, p.9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셧도다. (전경, 교운1장33절:169)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언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셧도다. (전경, 교운1장34절:169)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도통은 선천에서처럼 특정된 일부분에 한해서 주어지는 도통이 아니라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한 것으로서 수도여하에 따라 도통을 이루게 되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통진경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통진경은 모든 분야의 진리가 하나로 통하여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표현한 말로써 단지 이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천선경건설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인류에게 다가오는 구체적 현실개념이다.⁶⁰⁾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전경, 예시81절:336-337)

위의 전경구절은 도통진경된 후천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으로 해

60) 도즉야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 관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9면)

석할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선천에서처럼 억압속의 존재가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것⁶¹⁾임을 알 수 있다. 백성의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음은 정신적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노불사하는 것은 육체적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⁶²⁾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빈부의 차별이 없음을 통해 경제적 이상이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⁶³⁾ 사회적 면에 있어서는 단일문화권이 형성되며,⁶⁴⁾ 수화풍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된 다함은 자연환경의 理想的인 변화⁶⁵⁾를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간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현상들이 언어의 상이함에 있다고 보고 언어를 통일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

61)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전경, 교법3장26절:255)

62) “금산사 청련암(靑蓮庵)의 중 김 현찬(金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후 그는 환속하여 화축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 병욱(金秉旭)이 또한 명등을 바라므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쭙니 상제께서 내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등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전경, 행록1장37절:15-16)

63)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당혜를 신으리라.」 하셨도다.” (전경, 공사1장31절:109)

64)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일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전경, 공사3장5절:130-131)

65)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 ” (전경, 교법3장41절:258)

며,⁶⁶⁾ 물질적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전경, 교운1장41절:172)

이처럼 도통은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도통신과의 助力을 통해서 각자가 닦은 바에 따라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편벽됨이나 사사로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법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⁶⁸⁾

그럼으로 도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제에 대한 對越永侍의 마음으로 一心으로서 수도를 행할 때 도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⁶⁹⁾

결국 도에 信心을 가지고 상제님을 信仰하며 남을 信賴하고 스스로의 信用을 지키는 것은 바로 信을 실천하는 것이며, 도통된 이상세계에 이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66)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고 물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고 다시 대답하셨도다.” (전경, 교법3장40절:258)

67)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袞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전경, 예시80절:336)

68)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배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배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셧도다.” (전경, 교운1장33절:169)

69) “---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고 이르셨도다.” (전경, 예시50절:326)

VI. 結 論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소유물이나 영혼의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신뢰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관계 혹은 내면적 태도이다.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신뢰의 태도는 언제라도 불확실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하나님을 향한 확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며, 인격적 신뢰가 통채로 망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송두리채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적 요소의 둔화와 '적은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적은 믿음'은 '불신'은 아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신뢰심 혹은 불완전한 신뢰의 태도 내지 행동이다.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비정상적인 '예수를 신뢰함'이 제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기대되고, 또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와 의심, 염려가 제자들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믿음은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를 말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치를 믿음은 곧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天道이다. 하늘의 도는 공정하여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하여吉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며,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봉행 하는 것은 결국은 진멸지경에 빠진 세계와 인류를 바르게 고쳐 나가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

제께서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는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교법1장6절)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노력으로부터 받은 운수 또한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와 복록이 성경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 대순지침

-----, 대순진리회요람, 1969

성경전서

김학무, 「성서에 나타난 신앙」, 『사목』 126호, 1989

박익수, 바울의 서신과 신학 I, 대한기독교서회, 1994

송재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보편적 구원사상」, 『현대카톨릭사상』
제21호, 1999

이병철 편, 성서원어 신약신학사전 3, 서울:브니엘출판사, 1985

조철현,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I), 신학전망 71호, 1985

-----,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 신학전망 72호, 1986

B.S 차일즈 著/유선명 譯, 성서신학(하), 서울:은성, 1994

John F. O'Grady 著/박태식 譯, 바오로의 편지, 서울:바오로딸, 1999

H.Ridderbos 著/박영희 譯, 바울신학, 서울:비전, 1988

유승종,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대순사상논총』 제5집,
포천:대순사상학술원, 1998

이병문, 야고보서 2장 14-26절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 수원카톨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